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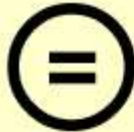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논문개요

예술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존재해왔다.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술은 현시점에서 다원화와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그 영역은 확장해 가고 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의 구원을 간구했던 과거의 관심은 예술의 아우라(Aura)가 소멸되면서 인간내면과 생명의 가치로 그 중심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인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토대로 하여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형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반복과 중첩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중첩은 ‘여러 층이 겹쳐있는 형태’를 뜻한다. 형태적으로는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리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통일된 패턴 안에 집중됨으로써 그 형태는 더 강조 될 수 있다.

또한 중첩은 시각적 측면에서 화면 속 공간에 움직임의 부여 하고 있으며 무한한 세계들이 만들어 지는 과정인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의 중첩은 시각적 측면에서 화면 속 공간에 반복과 중첩을 통해 규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내며 작품에 흥미를 더욱 유발시킨다.

따라서 본인 작품은 공간에서 얻는 이미지를 중첩으로 표현하여 공간을 시각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물감의 투명성을 이용해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만들어 내며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였다.

반복은 어떤 사건과 사건사이, 형태와 형태사이, 공간과 공간사이에 대한 동일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

또한 동일한 요소나 대상이 둘 이상 배열되어 나타나고 역동적으로 리듬감의 변화를 줄수 있으며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되면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어 리듬감이 생기므로 시각적인 힘의 강약효과를 느끼게 해준다.

본인 작품에서 동일한 요소가 반복하여 나타날 때 움직이는 느낌이 형성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화면이 형성되고 힘의 균일 효과로 인해 다양한 표현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복이 너무 적으면 단조롭게 되기 쉽고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적인 통일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의 이미지를 창조해 내고 있다.

본 작품에서 유기적인 형태의 이미지는 자연에서 빌려왔으며 이는 생명감과 자율적인 형태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였다.

섬세한 면들은 꿈틀거리는 유기적인 덩어리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중

첩과 반복을 통하여 다양한 형상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의식 속에서 선택된 이미지는 그 자체의 고유한 상징성을 지니거나 또한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본인 작품연구는 제작동기를 논하였고 공간적 표현과 유기적 형상 및 기하적 형상과 반복과 중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작업과정에서 표현의 기능을 모색하여 보인의 화면에 나타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	---

II. 본론	3
--------------	---

1. 제작동기	4
---------------	---

2. 공간표현	6
---------------	---

1) 공간연출	6
---------------	---

2) 중첩과 반복에 의한 공간감	8
-------------------------	---

3) 반복	12
-------------	----

4) 유기적 형상 및 기하학적 형상	15
---------------------------	----

3. 작품분석	18
---------------	----

III. 결론	28
---------------	----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록

- 《 작품 1 》 공간속의 속사임 100×110cm wood cut 2005
- 《 작품 2 》 공간속의 움직임 100×90cm wood cut 2005
- 《 작품 3 》 공간속의 움직임 90×90cm wood cut 2007
- 《 작품 4 》 공간속의 움직임 200×140cm wood cut 2007
- 《 작품 5 》 공간속의 움직임 70×70cm wood cut 2007
- 《 작품 6 》 공간속의 움직임 300×210cm wood cut 2007
- 《 작품 7 》 공간속의 움직임 165×125cm wood cut 2005
- 《 작품 8 》 공간속의 움직임 165×125cm wood cut 2007
- 《 작품 9 》 공간속의 움직임 165×125cm wood cut 2007
- 《 작품 10 》 공간속의 움직임 45×50cm wood cut 2005

I. 서론

미술작품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매체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술 또한 이미지나 표현양식이 그 이후의 변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반복과 중첩이라는 형식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점, 선, 면 중 면을 형식으로 삼아 기하학적인 형상을 화면에서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시켜가고 있다.

그중 다양한 패턴의 형식을 반복과 중첩을 통해 작업함으로서 보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형상과 시각적인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 작품에서 동일한 요소가 반복하여 나타날 때 움직이는 느낌이 형성되면서 살아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반복이 있으면 힘의 균일효과로 인해 다양한 표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반복이 너무 적으면 단조롭게 되기 쉽고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적인 통일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고정된 화면 속에서는 중첩된 이미지는 동일한 나열로 재배치되면서 화면의 실체 크기보다 확장된 이미지로 표현된다. 또한 평면속의 덩어리들은 중첩을 통해 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본인 작업의 차별성은 판의 커팅을 통해 각 판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중첩되어 다양한 형상들의 시각적인미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반복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어떠한 조형적인 특성과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표현기법으로 판화기법은 반복되는 이미지 제작이 용이하며 본인 작품에 있어 그 변화와 의미를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반복과 중첩을 통하여 시각적인 표현과 내제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본론에서는 첫 번째로는 제작 동기를 논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공간표현에서 공간연출, 중첩과 반복에 의한 공간감, 반복, 그리고 유기적및 기하학적 형상에 대해 본 논문에서 연구할 것이고 또한 본인 작품분석에 있어 최근 2년 동안의 전시 작품을 가지고 표현적, 형식적인 내용으로 분석할 것이며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II. 본 론

1. 제작동기

오늘날 우리의 생활공간은 다양한 색채와 패턴으로 구성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물질에 장식된 패턴은 인류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기표현의 수단을 찾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

본인 작품에서는 공간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 움직임을 통해 끊임없이 변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판화라는 매체 속에 가져와 패턴을 재해석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다.

패턴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도안이나 무늬, 결등을 의미한다. 패턴은 단순한 무늬의 의미를 넘어 사물의 특유의 질감을 포함하여 미술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장식적 역할을 한다.

즉 실제적 조형물의 양식화된 형태로서 시대와 사회성에 편입된 조형 단위를 의미한다.

본인 작품에서 다양한 패턴들을 보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세포들의 형상들을 재해석하여 패턴으로 화면을 형성해 나갔다.

자연적인 현상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을 이루고 있다. 본인은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그 질서와 규칙을 파악하고 축적해온 것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인지의 출처이자 미적 체험의 근원이 되고 있다.

꽃과 열매, 동물의 가죽에 나타나는 표면적 패턴으로부터 생물 성장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양식에 이르는 생명체의 문양이나 혹은 부식, 물결의 유동, 기후, 지층의 구조, 전체의 움직임과 같은 무기적 패턴 등을 통해 자연은 미적 체험을 감당하는 관찰자에게 일종의 패턴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주로 본인 작품에서 패턴은 자연의 이미지를 갖춘 유형으로 단독형과 반복적인 패턴, 기하학적 패턴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단독형 형식이란 활짝 핀 꽃의 패턴이나 새, 곤충, 들의 단독으로 배치한 패턴을 말한다. 《작품6.》에서 볼 수 있드시 기하학적인 덩어리들이 모여 단독적인 형식으로 화면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기하학적 양식의 패턴은 정방형이나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육각형 총화형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본 작품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본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형태들이다. 여기서 동. 식물이나 기하학적 무늬 단위들을 결합시켜서 전체적인 패턴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심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구성되며 추상 또는 비구상적 패턴들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 작품에서의 패턴은 동.식물을 양식화 하여 본인의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턴을 포괄적 의미에 따르면 모든 시각예술은 나름대로 작가 개인의 기호이자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된다. 따라서 본인작품은 패턴으로 인한 반복과 중첩단위 형태의 예술적 배열을 통해서 시각적 리듬 의 조화를 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인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로는 에셔(M.C escher 1898 네덜란드생) 무한한 공간을 형성하며 카오스(chaos) 이론과 프랙탈(fractal) 기하학 원리를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카오스 이론이란 단순히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닌 그 속의 거대한 창조성을 내포하고 거기에 풍부한 새로운 구조를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자기 조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카오스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 계의 상대변수 의 변화 법칙이 단순한 비례관계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계를 과학 용어로 ‘비선형’ 이라 한다. 선형계의 특징은 합산의 원리가 성립되는데 비해 비선형계는 합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동적인 비선형적 논리가 창조성을 내포할 수 있게 해준다.

카오스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프랙탈 기하학이다. 프랙탈의 뜻은 ‘온전한 것이 아닌’ , ‘어중간한’ 뜻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는 형태, 구원추, 직선 등으로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도구로 프랙탈을 소개하였다.

만델브로트는 “구름은 구가 아니고, 산은 원뿔이 아니며 ,해안선은 원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패턴은 불규칙적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함 속에서도 간단한 규칙이 내포되어있다.

프랙탈의 특징은 그 생성과정에서부터 쉽게 그 특징을 볼 수 있다. 프랙탈 이미지는 컴퓨터에 어떠한 규칙을 부여하면 그 규칙에 의해 스스로 창조되는 형태이다. 본인 작품에서도 간단한 기하학적 변환을 단순히 반복 점진시킴으로써 쉽게 프랙탈 패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프랙탈은 도형의 어느 부분을 확대하여도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기 닮음 구조를 갖는다. 프랙탈 조형은 시각적 또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 자기 유사성, 축소와 비례에 따른 형태, 잡아당김과 접어서 생기는 형태, 왜곡된 형태, 자기조직, 반복, 과 무한한 공간의 조형원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은 본인 작품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 작품에서 반복의 과정은 불규칙적인 패턴의 변화를 허용해서 각 규모에 따라서 그 세세한 구조가 달라진다면 자연에서 보는 형태나 구조와 매우 비슷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단순성은 코흐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한 규칙을 말하며, 복잡성은 간단한 규칙을 무한히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는 간단한 규칙과 무한한 반복이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내며 무한히 반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공간표현

1) 공간연출

인간은 공간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공간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절대조건이며 행동양식과 사고에 까지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공간은 추상적인 관념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사물과 접촉하고 호흡하는 물질적인 장으로도 존재하고 있다.¹⁾

현대의 끊임없이 공간추구를 암시했던 모홀리 나기 (moholy nagy)도 “인간의 문명이 번영했던 시대는 항상 그 시대의 독자적인 공간개념을 근본적으로 창조하여 왔다.” 고 말했다.

조형미술에서 있어서 공간개념은 예술전체의 존속을 통해 존재해 왔으며 공간은 시대가 다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되어 왔다.

그것은 항상 미결의 상태에 있는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무한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본질이 라고 할 수 있다. 2) 공간이란 앞뒤,상하, 좌우로 무한하게 퍼져있는 빈곳이라고 사전에 서술되어 있다.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들의 시각 세계를 심미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간의 구조는 환경과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회화는 그 어느것이든지 공간의 표상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 표현하는 이미지도 공간이라는 배경을 떠나서는 표현 할 수 없다. 본인 작품에서의 공간은 움직임을 통해 변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패턴이 중첩과 반복을

1) 구미경 자연공간의 <시,공간적표현연구> 이화여대 석.론, 1997, p.4

2) 조완영, <현대 미술공간 조형론> 이화여대 석.론 (미간행) p 1~44

통해 생성되어 진다.

또한 시각에 의해 나타나는 화면의 공간개념은 물리적, 철학적인 공간이 아니라 감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조형 의식을 통하여 다양한 화면 구성을 통해 생명체의 움직임 표현하고자 한다.

기디온(sigfried Gidion :1893~1968)은 《예술의 기원》에서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반영하지 않은 예술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예술에서 모두 환경에 반응하며 모든 예술적인 작품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³⁾

이처럼 공간을 인간의 정서적 영역으로 끌어 올리는 효과를 공간개념(Space conception) 이라고 한다.

조형공간은 형식에 의해서 공간을 기초로 한다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이것을 조형 공간 또는 공간예술이라 부른다.

특히 회화에서의 공간은 구성의 요소로 화면의 공간 배치의 표현 방법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묘사공간은 회화와 같은 평면 작업에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 것으로 회화공간은 사실상 2차원적이거나 명암의 연출과 색채의 농담, 원근법, 투시화법 등의 사용에 의해 3차원으로 느껴지도록 가장된다.

현대회화는 착각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원근법이나 투시법에 의한 종래의 방법을 배제하고 이전 회화가 대상의 재현에 목적을 둔 것을 회화에서는 미술의 자율성과 순수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어 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 작품에서의 공간표현에 있어서 2차적 공간의 평면을 재료의 조합으로 인해 공간의 일루전⁴⁾의 특성을 통해 변화된 3차원의 깊이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드러낸다.

2) 중첩과 반복에 의한 공간감

공간에 중첩이 도입된 것은 큐비즘 이후이다. 큐비즘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 구성 요소인 면의 해체와 분절 전이에 따른 중첩의 사용해서부터 발전된 것이다. 이런 평면적 구성이 입체적으로 전환된 것은 데 스틸과 구성주의에 이르러서였다.

큐비즘에 표현된 중첩을 살펴보면 1907년 큐비즘(Cubism)운동은 세잔느의 뒤를 이은 것이다. 큐비즘의 특징적인 형태는 투명효과를 이용하여 서로 겹쳐져서 화면을 분리하여 일정한 순서로 나란히 배치하여 대상을 조각적인 형태로 재구성 하였다. 또한 한 면을 강조하지 않고 대상의 시각적 표현인 원근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

3) 김복영 <현대 공간 조형론>, 홍익미술 제3호 1974, p.1

4) 일루전: 미술에 있어서 일루전은 환상, 환영으로 번역되며, 예술 작품 관조의 즈음에서 일어나는 심적 과정의 하나는 기억적 자기 착각이다. 회화의 부조나 평면의 깊이나 공간적 형태가 3차원으로 기억됨을 의미한다. 회화의 일루전은 투시도법, 명암의 효과 등에 의해 성립된다.

방법으로써 입체 공간론을 도입하였다.⁵⁾

중첩(overlapping) 또는 중복(superposition)은 계속적인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변화를 창출해내는 방편 중의 하나이다. 중첩은 고정된 화면 속에 여러 형상들을 중첩에 의해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화면을 실제 크기보다 크게 표현 할 수 있는 조건과 평면의 공간적 3차원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평면속의 선은 반복과 중첩을 통해 공간의 창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⁶⁾

중첩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화면 속 공간에 움직임의 부여 하고 있으며 무한한 세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또한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리워질 때 생기는 조형효과인 것이다.

그리고 중첩 형태는 단순한 동일 형태의 겹침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스(Mass)⁷⁾의 중첩이나 각기 다른 형태의 겹침도 의미한다.

이른하임(R.Amheim)은 대상의 중첩효과에 관하여 중첩은 대상의 부분을 제거 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상들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물의 물리적인 완전성(completeness)을 중요시하는 미술가에게 환영받는 선택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첩은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도입한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의 중첩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화면 속 공간에 반복을 통해 규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내면서 작품에 흥미를 더욱 유발시킨다. 또한 이미지의 반복은 단순한 리듬으로 평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에서의 반복은 일정한 노동을 요구 하고, 반복행위를 통해 지구력이 요구되며 몰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의식이 들기 힘들다.

또한 대상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상들을 통합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로 인하여 본인 작품에서는 자유로운 선과 면이 형태를 율동적으로 표현 하며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서 ‘율동’이란 용어는 본래 시나 음악에 쓰이는 것으로 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련된다. ‘보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보는 것은 율동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때 가장 효과적이고 유쾌하다.

그러므로 보는 데 율동적인 느낌을 주는 조형작품은 유기체가 시각에 집중되었을 때에 유쾌한 반응을 준다.

시각예술에 있어서 율동이란 여러요소나 패턴들의 규칙적, 반복적인 질서있는 흐름이다. 율동의 주요 유형에는 ‘반복적 율동’, ‘변화적 율동’, ‘점진적 율동’ 그리고 ‘흐

5) 한석우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1991), p35

6) 미술과 시지각 루돌프 아르하임 (미진사) p 114

7) 매스 : 조각, 회화에 사용하는 말로 보통 양감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부분이 집합하여 상당한 양으로 덩어리진 것을 말한다.

름' 등이 있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형, 색, 선, 방향 등의 반복은 율동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 선들 사이의 유사한 패턴의 공간상의 반복이나 색의 반복, 혹은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형의 반복도 또한 율동적이다.

미술에서의 율동적인 흐름은 우연적인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획되고 계산되어야 한다. 본인 작품에서는 우연적인 결과로도 형성될 수 있지만 이미 계획된 드로잉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산의 결과들은 예술성으로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좇아 흐르는 기계적인 패턴이 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본인 작품에서도 기계적인 율동감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곧 싫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본인은 율동을 볼 때는 어떤 기대감이 생겨난다.

본인의 율동적인 기대감은 높은 계단이나 폭 들어간 부분들에서 나타내며 본질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인데 '지속적 시간' 이기 때문에 율동은 본인 작품에서 이러한 율동은 큰 흐름의 역할을 한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의 투명성은 단순한 특징 이상의 것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의미하고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다.

투명에 의한 중첩효과는 단순한 화면의 운동감, 공간감을 부여하여 본인 작품에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면의 중첩은 빛과 색채, 재질에 따라 강조되거나 약화 시킬 수 있고 적절한 변화로 공간의 방향성과 연속성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본인 작품에서의 공간은 생물체들이 움직이고 숨 쉬며 공간속에 존재하게 된다. 만일 하나의 공간 형태가 다른 형태에 가리어서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뒤에 가려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겹쳐 있는 현상을 볼 때 다른 형상의 표면을 가린 형상은 더욱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게 되며 즉 우리는 공간적 차이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 작품에서 중첩은 표면의 깊이를 가리키며 그것은 새로운 공간감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빈 공간은 새로운 감성들이 생성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공간이며 중첩된 이미지의 표현은 무한한 공간감과 함께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표현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화면은 대칭을 이루거나 연속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관람자의 시선을 자유롭게 하여 화면 밖의 공간과 상호작용에 의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개방된 형식으로 무한한 확장감을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첩된 이미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형상들은 새롭게 지각되기도 하고 상상을 유발하게 되어 더욱더 새로운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중첩의 개념으로 대상의 보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개입시키고 판을 중첩과 반복으로 찍다보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며 무한한 확장감으로 현실세계의 공간과 작품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시각에 의한 공간을 형성

하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무한함을 느끼고자 함이다.

본인 작품에서의 덩어리 선들은 평면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유기체 처럼 표현하였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뒤섞이며 겹쳐짐으로 인해 뒤에 가리워진 형은 멀리 있는 것으로 앞에 있는 형태는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여 2차원의 평면 안에 3차원의 공간감을 만든다.

평면위에 그어진 선과면 위에 선과 면이 없어지는 것은 선과 면이 평면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2차원의 평면과 패턴이 분리되며 창출된 공간위에 같은 패턴이 없어지면서 또 다른 공간이 창출되는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 인 것이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 공간감을 색으로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명도에 의해 중첩의 효과와 공간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명도의 사용은 중첩에 있어 거리감과 공간감을 색으로 나타내기에 가장 접합하다 할 수 있다.

명도는 한 가지 색 만으로도 공간 연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색상이 개입되더라도 응용방법은 동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밝은 배경위에 있는 선들은 배경과 거리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명도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밝음과 어둠으로 대비를 통해 공간감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조건으로 <작품2. 공간속의움직임>과 같은 작품에서는 중첩의 거리차이, 공간감을 만들어 주는 효과는 명도대비가 유용한 방법인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의 형태 그 자체를 지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깊이, 거리, 부피 뿐 아니라 3차원적 형태의 지각과 공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첩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 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 한다.

또한 투명재료를 사용하면 교차되는 부분을 통해 깊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중첩의 구조는 재료의 겹침에 의해 다양한 중색의 과정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면 내부로의 깊이와 색의 중첩관계를 나타나게 되고 본 작품에서의 투명성의 특징의 사용은 형태를 결합시킴과 동시에 중첩의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3) 반복

순수미술에서 반복의 방법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용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미술에서 형태를 반복하는 방법은 순수미술보다는 모자이크나 직물 문양과 같은 장식미술에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구성의 목표는 비례나 대비의 법칙에 근거한 변화와 조화에 있었으며, 통일 형태를 반복하는 것은 단조로운 구성으로 오히려 회피되어 왔다.

현대미술이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미술사에서는 반복 이라는 형식으로 시각화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팝 아트의 같은 형의 반복은 언제나 이러한 대중문화와 대량생산의 획일성을 의미

했다. 그리고 반복 이미지의 조형적 특징으로 반복이 계속할수록 한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일화성, 감상적인 내용성은 점차 잊혀지고 장식적이며 조형적인 속성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니멀리즘에서의 반복을 보면 미니멀(Minimalism)작가들은 특정한 부분의 강조나 절정이 없이 같은 단위의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상관성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니멀 작가들에게 관심이 있던 것은 동일한 단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단위들이 무한히 늘어날 것 같은 암시를 주는 것이었다.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분리성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단위의 반복성을 이용하였으며 도널드 주드(Donald Judd, 1928-1994)는 전체성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그의 작품의 단위들 내에서 작용하는 질서는 ‘하나하나 연이어서 나타나는 계속성을 가진 단순한 순서일 따름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량 생산에 따른 일정한 모양과 크기의 단위들을 사용함으로써 끝이 없는 사슬처럼 반복적인 방식으로 배치된 작품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반복속의 미묘한 차이만을 발견해 내는 것이 점점 많은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미니멀 작가들은 평면 또는 조각의 배열에서 그리고 행위의 반복성을 통하여 서로 관계되는 구성을 피하고 특정한 부분에 대한 강조와 논리적 결론 같은 예전의 예술 개념을 변화시켜 새로운 방법론을 미술사에 제시하는 공로를 하였다.

20세기 현대미술에 와서 많은 미술가들이 반복의 방법을 가진 의미와 효과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반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반복은 (repetition) 은 어떤 사건과 사건사이, 형태와 형태사이, 공간과 공간사이에 대한 동일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⁸⁾

움직임을 표현하는 조형방법의 하나로서 리듬의 표현 곧 리듬의 본질은 반복이다. 또한 동일한 요소나 대상이 둘 이상 배열되어 나타나고 연속적으로 리듬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되면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어 리듬감이 생기므로 시각적인 힘의 강약효과를 느끼게 해준다.⁹⁾

공간에서의 반복은 획일성 반복과 변화성 반복이 있다. 한 단위의 획일성 반복은 강한 통일성을 주며 명백하고 강조된 효과를 가지며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순열로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획일성 반복은 변화, 대비, 대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조로울 수 있다. 이와 달리 변화성 반복은 자연 질서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본 인 논문에서 반복이라는 형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은 물론 반복이라는 형

8) 한석우,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1991 p 35

9) 윤나지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3월호, 1992 p106)

식에 별 관심을 느끼지 못했지만 본인 작품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반복’이라는 시각적인 조형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솔직히 거창한 철학보다는 생활에서 오는 근원적인 무언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되어 진다.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는 반복적인 형식의 작품들에 눈길이 가는 것도 그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생활의 습관들은 결국 반복적인 성향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인 작품에서 보이는 반복성의 미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작품 1~10 공간속의 움직임> 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반복적인 면과 패턴들은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는 시각적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 작품5 공간속의 움직임 > 작품에서 보이는 초기 작품에서는 단독형적인 꽃이라는 구체적 형상을 토대로 하여 화면 속에 공간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강렬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볼륨감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에 보였던 작품들은 단독형적인 이미지 대신에 반복과 중첩을 통한 형식으로 공간속 화면에 살아 숨쉬고 끈임 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 유기적 형성 및 기하학적 형상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고 자연이 갖는 미를 표현하는 조형적 수단으로서 개개인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승화된 새로운 미에서 그 완성을 초래한다.¹⁰⁾

유기적이란 생물이나 생명 현상이 서로 의존하는 부분들로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생명의 속성을 지니는 어떤 질서를 뜻한다.¹¹⁾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형태를 유기적 형태라고 부르며 모든 유기체들은 스스로 조절되고 질서 있는 다양한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의 유기적 형태란 그 자체와 결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갖는 탄성과 에너지, 생명력, 등은 유기체의 존재 조건이며 이를 반영하는 유기적 형태는 생명체의 가장 뚜렷한 시지각적 특징이다. 각각의 유기체들이 보여주는 형태들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규칙하고 복잡하다. 또한 유기체는 무의식과 욕망을 강조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미술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이미지의 미완결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초현실주의 상상적 결합이나 우연성의 강조 그리고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상의 형상을 해체하기도 한다. 이같이 표현 양식은 유기 이미지의 회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20세기 후기회화는 반복과차이의 교차로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이러한 흐름들이 현대 회화에서 유기적 이미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자연물이나 인체 표면 등의 3차원적인 외형을 그대로 모방, 재현하기 보다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유기적인 조직의 기본과 힘 등을 선택하여 형상화 한다.¹²⁾

이러한 이미지들은 동적인 구조로서 생물학적 특성을 표현하고 비대칭적 형태로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현상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내재되어 있는 항구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 유기적 이미지는 반복적으로 행해진다.

본인 작품에서 보여 지는 유기적인 형태는 계획된 스케치와 찍혀 나오는 과정에서 수학적 근거에 의해 완결된 이미지로서 그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10) 박용숙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문예출판사

논문) 2002 p 10-12

12) 최현정 유기적 이미지 반복을 통한12) 박지숙 <1980년대 회화에 있어서 유기 이미지와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박사 회화적 표현연구,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여기서 기하학은 영어로 '지오메트리(geometry)'라 하는데 'geo'의 지구, 땅, 토지라는 의미와 'metry'라는 측정술, 측량을 뜻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기하학은 본다는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수학적 면에서 논리적인 미의식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지극히 조화와 균형이 잡힌 상태를 말하며 사물의 형과 크기를 취급하는 과학 또는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20세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복잡한 현대사회의 형상을 단순화시키고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적인 미감을 표현하였다.

기하학적인 형태란 복잡한 자연물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경향이 이루어낸 인공적인 추상의 형태이며 자연의 유기적 형태를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체계에 의해 창조된 형태라는 점에서 자연의 은유적인 형태 혹은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인 작품에서의 기하학적 형태는 자연의 이미지를 가져와 본인 작품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다양한 패턴으로 생성되어 화면을 채워 나갔다.

또한 시각적 전달이 뛰어나며 비현실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질서를 갖고 규칙적인 것으로 명쾌한 조형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회화를 포함한 예술분야에 있어서 유기적 이미지의 표현은 예술가의 정서적인 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유기적 이미지는 회화에서 형태와과정의 결과이고 시공간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진다.

본인 작품에서도 자연의 생명감을 표현하고 그 표현된 형태가 자율적인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 유기체적 세포형태의 미완결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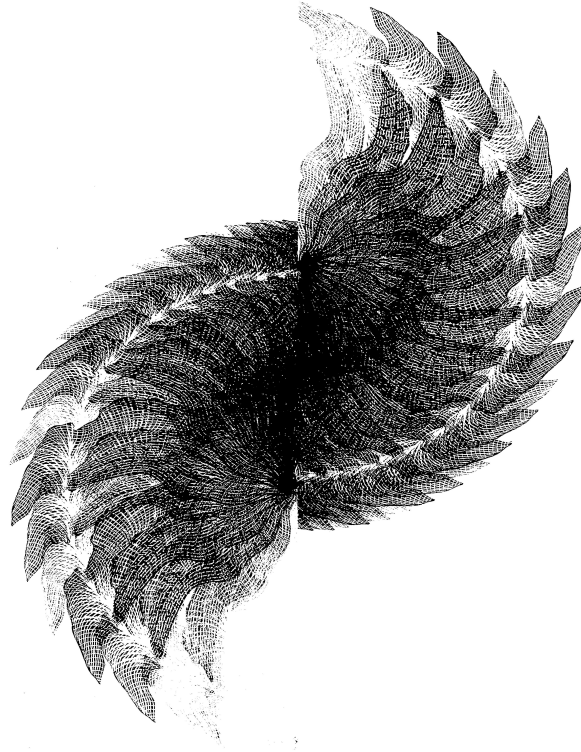
섬세히 그은 선들과 면들은 꿈틀거리는 유기적인 덩어리의 변화들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다시 선과 면은 중첩을 통해 다양한 형상의 유기체들이 만들어진 다.

따라서 본인 작품에서 선택된 이미지는 그 자체의 고유한 상징성을 지니거나 또한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만들어 지기도 한다.

본인 작품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내면세계를 유기적 형상에 적용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재구성 표현하고자 한다.

3. 작품분석

〈작품 1〉



공간속의 속삭임 wood cut 100×110cm 2005

반복과 좌우 대칭되는 이미지를 통하여 살아있는 듯한 유기체의 움직임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첩된 형태는 공간속에서의 역동적인 느낌으로 화면을 연출하여 나타내었다. 조금씩 벌어지며 중복되는 이미지는 또 다른 형상으로 생명력이 느껴지게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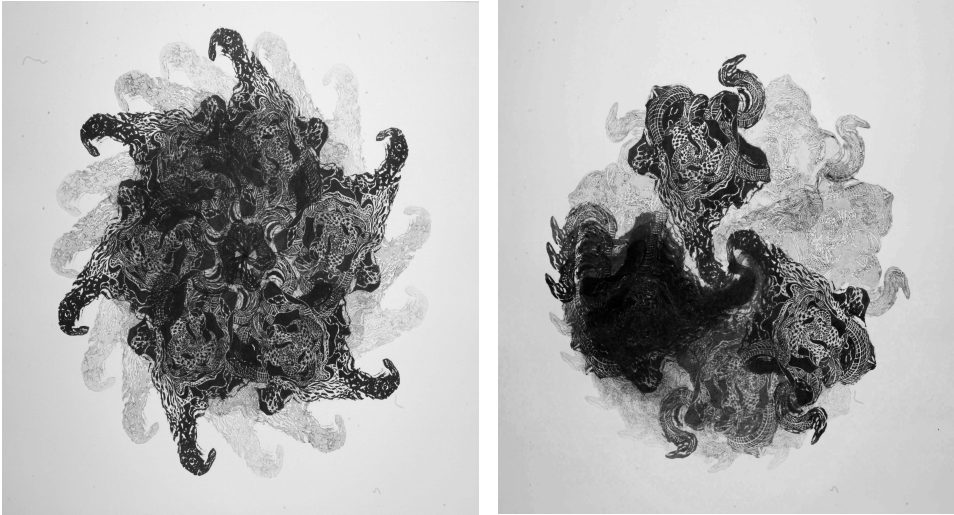
〈작품2.〉



공간속의 움직임 100×90cm wood cut 2005

작품은 화면 속에서 좀더 율동감을 강조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미세한 부분을 크로즈업해 놓은 것처럼 생명체가 있는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잉크의 명도를 통해 좀더 깊이감 있는 차이를 통하여 공간속에서 무한한 움직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첩과 반복을 통해 다양한 중색 과정을 표현하였다.
화면 오른쪽으로 나아갈듯한 구도를 통하여 좀더 확장되는 유기체의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실려가는 잎처럼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미지를 화면에 이끌어 표현하였다.

〈 작품3. 〉



공간속의 움직임 wood cut 45×45cm 2007

옅게 드러나는 투명한 중첩으로 인해 투시되는 효과로 화면상의 공간은 형성되며 가리워진 부분들은 상상을 유도하며 암시적이고 확장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의 투명성은 단순히 특징 이상의 것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의미하고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다.

패턴으로 둘러싸인 유기체들은 끊임없이 변함을 추구하며 투명정도에 따라 중첩된 양상을 유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작품4 〉



공간속의 움직임 wood cut 200×140cm 2007

형상이 공간속에서 사라질듯 또는 다시 나타나듯 좌우 대칭되어 화면을 구성하였다. 시각적으로 화면에서 좀더 리듬감 있게 공간구성을 하여 확장된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볼륨감 있는 패턴의 느낌과 더불어 좀더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누어진 두 개의 공간은 별개의 공간이 아닌 같은 화면처럼 보여질 수 있게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작품5.〉



공간속의 움직임 70×70cm wood cut 2007

하나의 형상을 화면 가득채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공간 구성을 하였다. 중첩된 이미지는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의 중앙으로 모여드는 또한 화면 밖으로 확장되어 나오는 이미지 처럼 평면속에서 공간의 움직임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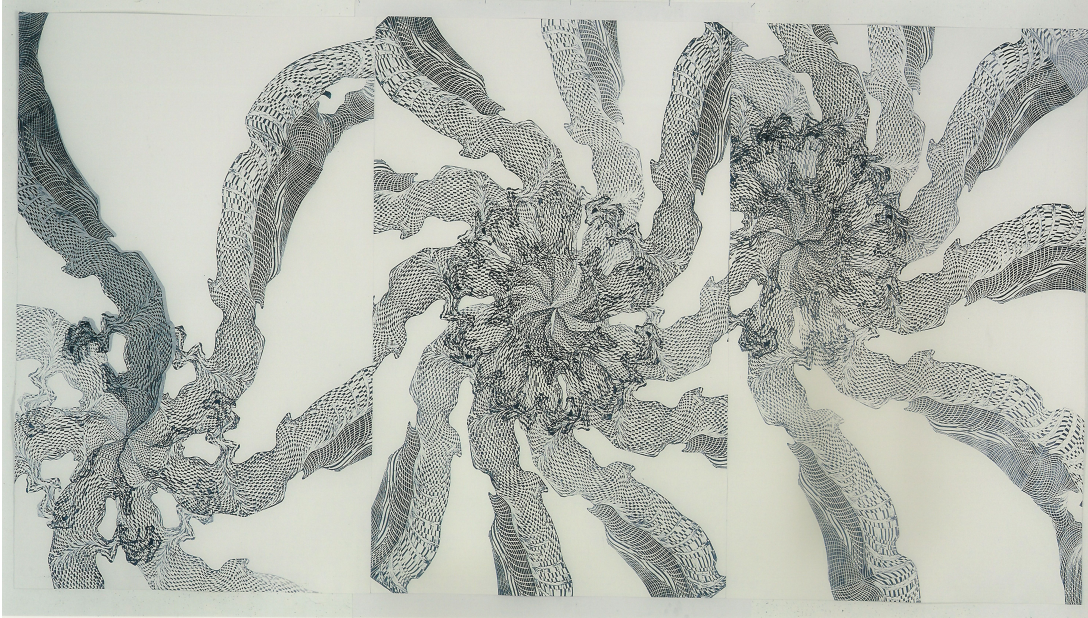
〈 작품6. 〉



공간속의 움직임 198.5×160 cm wood cut 2007

유기적 형태는 정교하고 다양한 덩어리와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꽃잎들은 모두 일정치 않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패턴으로 채워진 덩어리들은 서로 교차를 통해 변형되어 하나의 자연이미지를 닮은 형상이 만들어지고 꽃잎들은 그 이미지의 특징을 살리면서 새로운 형태로 재 창조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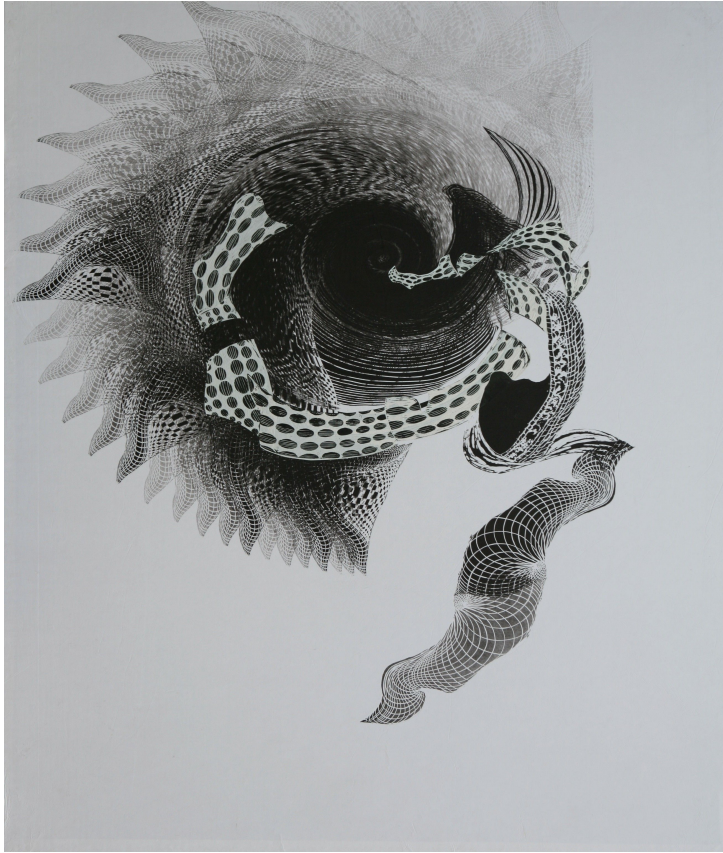
〈작품7.〉



공간속의 움직임 300×210cm wood cut 2005

각각 나열된 화면은 공간속에서 율동감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곡선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방향성 있게 움직이는 형상들은 화면 밖으로 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느낌처럼 표현 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형상의 주기 다른 움직임으로 시선의 변화와 공간의 하나의 패턴이 연속되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형태의 흐름을 부각시켜 나타내고자 하였다.

〈 작품8.〉



〈 I.〉 공간속의 움직임 160.5×120cm wood cut 2007

작품 I,II>의 작품에서는 덩어리 선들은 평면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유기체 처럼 보인다. 그 유기체들은 서로 뒤섞이며 겹쳐짐으로 인해 뒤에 가리워진 형은 멀리 있는 것으로 앞에 있는 형태는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여 2차원의 평면 안에 3차원의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면위에 그어진 선과면 위에 선과 면이 없어지는 것은 선과 면이 평면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2차원의 평면과 패턴이 분리되며 창출된 공간위에 같은 패턴이 없어지면서 또 다른 공간이 창출되는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 작품9. 〉



〈 II. 〉 공간속의 움직임 160.5×120cm wood cut 2007

《 작품10. 》



공간속의 움직임 45×50 cm wood cut 2005

꽃이라는 구체적 형상을 토대로 하여 화면속 에서 공간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강조한 색상을 사물로 볼륨감을 느낄 수 있게 다양한 패턴으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꽃잎 하나하나 각각 다른 이미지로 변화를 주어 공간속에서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실제보다 훨씬 확대되어 표현한 이미지는 형태보다는 공간의 움직임을 좀 더 부각 시켜 보고자 하였다.

Ⅲ. 결 론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삶의 영역에는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사물 하나하나의 형태 그 자체가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감의 표현을 위해 반복과 중첩으로 나타나는 효과로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첩은 2차적 차원으로 표현된 현상들이 입체적 또한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명도에 의해 거리감과 깊이감,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본인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이미지의 반복은 통일된 형태 속에서 집중함으로써 관계를 강하게 하여 통합시키고 다양한 패턴의 재 진술이 아닌 또 다른 이미지의 생성을 의미한다. 이는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주제를 더욱 극대화시켜 이미지를 나열하는 확장된 개념도 포함 하고 있다.

그 형상들은 자연의 이미지를 닮은 형태들 꽃과 열매, 동물 가죽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패턴으로 화면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반복과 중첩을 통해 실제크기보다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과 평면의 공간적 3차원 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시각적 층면에서 화면 속 공간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작업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면안의 형태의 변형이 필요하며 그 형태의 변형은 본인작품에서 그 이미지의 특징을 살리면서 간결하게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의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특징적인 구조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형시킨 형태를 조정하고 재형성하여 이미지의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다시 재창조하고자 한다. 본인은 오묘한 조화의 법칙 속에서 질서를 갖추고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생명체들의 유기적 순환 과정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본인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작품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더불어 새로운 시각에서 반복된 이미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춘일, 박남희 <조형의 기초와 분석> . 서울 미진사,1995.
- 칸딘스키의 예술론 II <점. 선. 면>. 차봉희 역, 열화당,2000
- 윤난지.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원간미술. 1992.3월
- 이민주.<유기적 형태의 반복을 통한 생명이미지 표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최정현 <유기적 이미지 반복을 통한 회화적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용숙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백희경 <반복적 선에 의한 시각적 표현 연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윤경<추상표현주의에 나타난 선의 회화적 연구> 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회화
과
- 한석우 <입체조형> 서울:미진사
- 김복영 <현대공간의 조형론> 홍익미술 제3호 1974
- 구미경 <자연적 공간의 시간적 공간연구> 이화여대 석.론
-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 서울 미진사
- 이종우 (1997) <기하학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서울:신문사 p5
- G.케퍼스, <사각언어>, 유한데(역) 1989, p.76

Abstract

Study on Expression of space repetition and overlap of Image

-with a focus my own work of printmaking-

Lee jae young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history of arts is as long as that of society. Arts have been with the society irrespective of time and space. At present, arts, inseparable from human life, is expanding its realm via diversification and popularization. As the aura of the art dimmed out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the ultimate pursuit of arts has been altered from the salvation to the inner self of human beings and value of life. The author of this study is also interested in organic forms with vitality that are expressed with geometric shapes. In her works, visual variation is pursued via repetition and overlap.

As shapes are overlapped and parts are covered by other parts in different layers, unified patterns that such overlapped images make are more focused and as a result, the whole is more emphasized. In addition, overlap, in the respect of visual effect, impose motions to the space and produced infinite world of shapes. Such motion produced by repetition and overlap generate rhythm and beat. With the motion and rhythm in the works, the author visualizes empty space. By using transparency of watercolor wide range of spatial order is produced and different dimensions can be existed in a same space. The use of repetition and overlap is to fulfill the object depicted above.

Repetition in her works refers to continuance of identical patterns in between events, shapes and spaces. When more than two identical objects are arranged, it also produces activeness and rhythm, and guide sights to move to a certain direction. With the repetition of identical shapes, visual difference in strength is expressed. As motion is expressed by repetition, objects are given vitality and strength is equalized to bring about diverse expressive effects. Here degree and amount of repetition is carefully decided because when it is repeated too little, visual effects gets too simple, while the wholeness is hindered when it is repeated too much.

Organic shapes of images in her works are employed from the nature and are used to express vitality and self-controlling mechanism. Delicately-reorganized faces are adopted to express organic matter with mobility. Repetition and overlap are used to express diverse shapes. By using diverse methods of expression, the author consciously designs unique symbolism and emotions. The study depicts motive that author has, and how repetition and overlap of organic shapes are used for visual expression of space. The study aims at seeking functions of each method of expression in the author's work and how the method is activated to express the author's design in her works.